

2022-06-27 (2022-24호)

6월 27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분기말 변동성 경계... 고점 인식 없어 경제지표·수급 긴장 ↑

서울, 6월2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경제지표와 분기말 수급에 영향받으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5~1,305원이다.

지난 주말 달러/원 환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로 급등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원에 대한 단기 고점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환율은 국내외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보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국 6월 제조업 지표에 더해 특히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로, 이를 전후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전달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 둔화에 안심했던 시장이 충격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에 심한 몸살을 앓았던 학습효과 때문에 시장은 미국 6월 CPI 발표 전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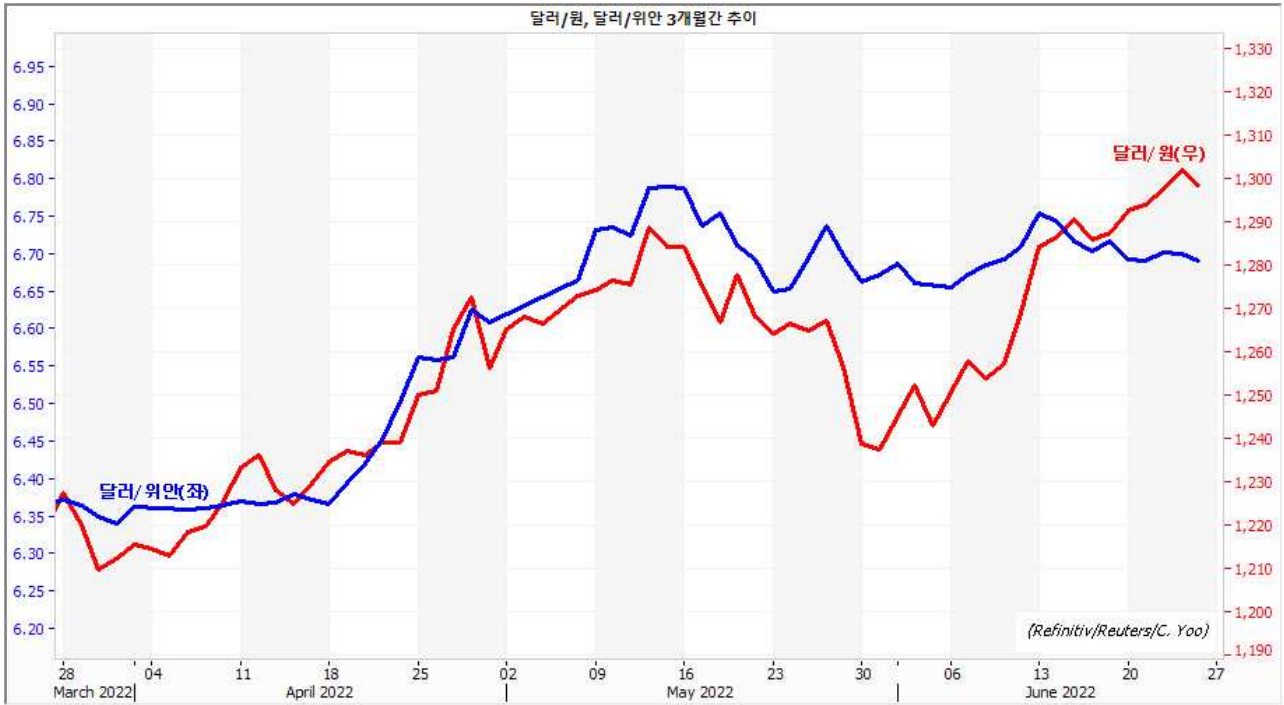
이번 주는 분기말 수급 변수를 빼놓을 수 없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중 5조원대 매물을 쏟아낸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는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분기말 리밸런싱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최근 역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분기말에도 인상적인 네고 저항보다는 수요 우위 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율은 하단 지지력을 확보한 채 재차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

특히 6월 수출 지표 부진이 확인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작년 동월 대비 조업일수가 2일 적은 탓에 6월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도 전월 대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중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 참석에 연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 챙겨봐야 할 지표로는 1분기 외환 개입 내역과 5월 산업활동 동향 등이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27일(일)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6월) 발간 (12:00)
- 한국은행: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12:00)

6월28일(화)

- 한국은행: 2021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전국편) : 2020~2050년 (12:00)
-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12:00)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12:00)
-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15:00)

6월29일(수)

- 한국은행: 2022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금융감독원: '22.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06:00)
- 기획재정부: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11:00)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11:00)
- 기획재정부: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12:00)
- 한국은행: 2022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금융위원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개선 방안 (12:00)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15:00)

6월30일(목)

- 한국은행: 2022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금융감독원: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06: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07:10)
- 통계청: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08:00)
- 기획재정부: 2022년 5월 산업활동동향 평가 (09:00)
- 기획재정부: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 (10:00)
- 금융감독원: 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10:00)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0:00)
- KDI: KDI 북한경제리뷰(2022. 6) (12:00)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2.6 -논고: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12:00)
- 한국은행: 2022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한국은행: 2022년 1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배포시)

7월1일(금)

- 금융감독원: '22.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06:00)
- 금융감독원: 원장 시장전문가 간담회 (07:30)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 (08:30)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6월 수출입 동향 (09:00)
- 통계청: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6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Y	5월		Percent	-8.60%
6월2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4월		Index	2.1
6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5월	-0.4%	Percent	0.5%
6월27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지수	5월		Index	99.3
6월27일	23:30	미국	달러스연은 제조업경기지수	6월		Index	-7.30
6월28일	21:30	미국	도매재고 잠정치	5월		Percent	2.2%
6월28일	21:30	미국	소매재고 잠정치	5월		Percent	1.7%
6월28일	22:00	미국	FHFA 주택가격 YY	4월		Percent	19.0%
6월28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YY	4월		Percent	21.2%
6월28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6월	100.0	Index	106.4
6월29일	08:50	일본	소매판매	5월		Percent	2.9%
6월29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5월	5.9%	Percent	6.0%
6월29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5월		Percent	4.5%
6월29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6월		Indicator	1.23
6월29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6월	104.0	Index	105.0
6월29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6월		Net balance	-23.6
6월29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6월24일 주간		Index	320.4
6월29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1분기		Percent	-1.5%
6월30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5월		Percent	-1.5%
6월30일	10:30	중국	NBS 제조업 PMI	6월		Index (diffusion)	49.6
6월30일	10:30	중국	NBS 서비스업 PMI	6월		Index (diffusion)	47.8
6월30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5월		Percent	30.5%
6월30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5월		Percent	2.2%
6월30일	18:00	유로존	실업률	5월	6.8%	Percent	6.8%
6월30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5월		Percent	0.4%
6월30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5월		Percent	0.3%
6월3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20일 주간		Person	229k
6월30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6월		Index	60.3

7월1일	08:30	일본	도쿄 CPI	6월		Percent	2.4%
7월1일	08:30	일본	실업률	5월		Percent	2.5%
7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6월		USD	1,329.7B
7월1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2분기	13	Index (diffusion)	14
7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최종	6월		Index (diffusion)	52.7
7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6월		Index (diffusion)	48.1
7월1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	6월	52.0	Index (diffusion)	52.0
7월1일	18:00	유로존	CPI NSA	6월		Index	116.07
7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최종	6월		Index (diffusion)	52.4
7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5월		Percent	0.2%
7월1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6월	55.8	Index	56.1
7월1-6일	23:00	미국	자동차 판매	6월		Units	2.680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27일(월)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피터슨 리더십 시상식 만찬 참석 (28일 오전 7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포럼 환영사 (28일 오전 3시30분)

6월28일(화)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할리팩스 카운티 상공회의소 연설 (오후 9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포럼 기조연설 (오후 5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링크드인 주최 행사 화상 대담 참석 (28일 오전 1시30분)

6월29일(수)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ECB 포럼 참석 (오후 7시30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ECB포럼 연설 (오후 9시30분)

6월30일(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리뉴유럽 주최 행사 참석 (오후 10시30분)

7월1일(금)

- ⊙ 휴장국가: 홍콩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상반기 마무리

지난 2022년 상반기는 금리 상승, 시장 혼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전쟁 등이 어우러진 격동의 시기였다.

하반기에는 아마 경제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리라 전망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중앙은행들의 긴축을 덜 공격적으로 만들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 3.25~3.5%로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로존 금리는 현재 -0.5%에서 0.75%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식시장은 한숨을 돌린 듯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를 때까지 하락하다가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면 랠리를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전했다.

### ⊙ ECB 포럼과 유로존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에게 잭슨홀 회의가 있다면 유럽중앙은행(ECB)에게는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는 중앙은행 포럼이 있다.

2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신트라 포럼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특히 관심을 끈다.

이번 포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외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참석해 연설한다.

오는 7월1일에는 ECB의 향후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 ⊙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공식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노드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은 감소했고, 이에 독일은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만기를 맞은 7,125만달러와 2,650만유로의 채권 이자를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27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등

금주 발표될 미국 주요 경제지표들은 올해 연준의 총 150bp 금리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가능할 지표가 될 것이다.

오는 28일 발표될 미국의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0을 기록해 전달의 106.4보다 하락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그밖에 잠정 주택판매(27일)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28일)은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타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 것이며,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인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30일)도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 ◎ 중국 경제 회복 신호 나올까?

오는 30일에는 중국의 6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세계 경제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성장의 전조로 여겨지는 구리 가격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2주 만에 거의 10%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봉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6월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 경기 확장을 시사할 경우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

지난달 공식 제조업 PMI는 49.6을 기록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MSCI 편입 불발, 오히려 외환시장 개편 신중하게 추진할 기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6월2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국 주식의 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편입 위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MSCI는 역외 외환시장 부재와 공매도 제한 등을 지적했던 터라 이번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1992년 한국 증시가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한 이후 2008년 투자자 의견 수렴 등 선진국지수 편입에 공을 들였지만, 2014년에는 선진국지수 위치리스트에서조차 빠졌다.

그러다가 2015년 편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외환거래 시간 30분 연장과 외국인 투자 편의를 위한 통합계좌 제도 등을 시행했지만, 원화 환전 문제로 2016년 선진국 리뷰 리스트 편입에 실패했다.

잠시 잊혔던 이 사안은 작년 후반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그것도 그간 당국이 가장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외환시장 개방 카드를 손수 꺼내 들면서 말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데 대해 적잖이 당황했다. 외환시장 개방이 이렇게 쉬운 거였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정부는 외환거래 시간 연장과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확대라는 큰 방향을 던졌고, 그러면서 시장과의 논의를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MSCI 일정에 맞춘 듯한 정부의 광폭 행보를 우려했고, 정부는 MSCI 일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가 퇴임 전까지 뉴욕에서 MSCI 회장과 면담하며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열을 올리자 시장 참가자들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일정과 원화 선진화 일정이 맞춰지고 있다고 여기며 우려했다. 외환시장의 준비 과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편입 불발이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올 만하다. 이전 정부의 선진국지수 편입 강박에서 벗어나 외환시장 선진화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 이제부터 시작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전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그대로 담았다. 결국 외환 정책에 대한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300원대로 상승하는 등 불안한 흐름에 시장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외환당국은 시장 선진화 방향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당국과 시장이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관련 준비를 다시 진행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여전히 시장 일부에서는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 감내력을 우려하고 있다.

역외 기관에 비해 시스템이나 인력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중은행 여건, 국내 기관의 규제 역차별과 역외 기관의 규제 회피 가능성, 거래시간 연장과 전자거래 시스템 기반 거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국내 외은 지점 인력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 시스템 거래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보지도 않았고, 특히 대부분 시중은행은 아직 준비 과정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원화 차입이나 스왑시장 확대 여부는 원화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외환시장 개방은 수년간 미뤄온 숙원과제였다. 그만큼 살펴야 할 이슈들이 많은 데다 그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

대외 불안 요인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외환시장이 쏠림 현상에 시달리는 데 대한 해법으로 외환당국은 시장 선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시장 참가자를 늘리고 외환거래 기법도 다양화해서 원화의 자체적인 시장판을 키운다는 목표와 방향을 당국이 제시한 셈이다.

그렇다면 시장도 이에 대한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관들의 눈높이보다는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국내 기관의 준비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추는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 외환시장 제도를 조금씩 완화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준비하기를 반복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국내 기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매번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개방 이후에도 원화 거래 중심이 국내 기관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잘 전달되고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외환시장 선진화가 당장 해치워야 하는 숙제가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진행하기를 기존 시장 참가자들은 바라고 있다.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2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98.2	-0.8%	-8.4%	-8.6%	유로	1.0556	0.5%	-7.2%	-6.9%
100엔 대비	953.7	0.3%	8.3%	+1.8%	엔	135.19	-0.2%	-14.9%	-10.3%
유로 대비	1,361.0	-0.4%	-0.7%	-1.9%	위안	6.6898	0.4%	-5.0%	+2.7%
위안 대비	192.73	-0.2%	-3.0%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500.68	5.4%	-13.3%	+18.7%
코스피	2,366.60	-3.0%	-20.5%	+3.6%	나스닥	11,607.62	7.5%	-25.8%	+21.4%
코스닥	750.30	-6.1%	-27.4%	+6.8%	S&P500	3,911.74	6.4%	-17.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9.11	1.5%	-16.0%	-4.9%
국고채 3Y	3.523%	-22.2bp	172.5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666%	-18.9bp	165.5bp	+67.6bp	미국채 2Y	3.060%	-11.0bp	233.0bp	+61.0bp
국고채10Y	3.635%	-16.0bp	138.5bp	+53.7bp	미국채 10Y	3.140%	-9.0bp	163.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07.06	-3.1%	41.9%	+55.8%	한국 5Y	50.2bp	-1.6bp	28.1bp	-0.7bp
금(현물)	1,827.18	-0.7%	-0.1%	-3.6%	일본 5Y	20.3bp	0.3bp	2.7bp	+2.1bp
TR상품지수	3,629.10	-1.3%	8.7%	+24.6%	중국 5Y	81.2bp	-6.9bp	40.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